



법무공단 동부지부, 이·미용 봉사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가 27일 속식 보호 중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를 진행했다.

한승연뷰티샵 한승연 원장과 심은홍미용기능장집 심은홍 대표원장이 대상자들 머리를 손질해줬다.

한승연 원장과 심은홍 대표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봉사활동에 동참해 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희망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고규봉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아가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이어가며 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LH광주전남본부, 안전문화의 날 행사

LH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유병용)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행사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안전관리 강화를 ESG경영 중 사회분야 핵심가치로 삼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안전보건경영 선언 △책임안전시공 선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용품 지원 등으로 진행됐다.

유병용 LH광주전남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시설물·건설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과 입주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무더위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 취약 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적십자사는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을 운영하는 한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활동가들이 나서 심리적 안정까지 지원한다.

또한 적십자 봉사원들은 쉼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생수과 폭염 예방 키트를 제공하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야외 활동 시간이 긴 지역민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초록우산 광주, 폭염 취약계층 아동에 ‘냉방키트’

초록우산 광주후원회 등 참여 후원자 32명 1300만원 모금 아동 52명 가정에 물품 전달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52명을 대상으로 ‘무더위 냉방키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광주지역 후원자 32명의 참여로 이뤄진 긴급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초록우산 광주후원회, ㈜오르비텍, 기아차 셋별회 등 총 32명의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은 총 1,300만원에 달했다.

이 모금액으로 서큐레이터, 냉방이불세트, 넥쿨러, 핸드 선풍기, 삼계탕 등 25만원 상당의 냉방키트가 구성돼 이달초 해당 가정에 전달됐다.

지원을 받은 한 어머니와 아이는 “임신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52명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 냉방키트’를 전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8개월이라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사하다”며 “여름 이불이 없어서 더웠는데 시원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것 같다”고 말했다.

변정근 본부장은 “광주 구도심은 노후

주택이 많아 특히 폭염에 취약한 가정이 많다”며 “이번 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후원자들이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체가 되어준 의미 있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유영태 초록우산 광주후원회장은 “작

은 나눔이 모여 아이들의 여름을 지겨울 수 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동들이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호남대 학생상담센터, 학생 심리치료 지원

송광한가족상담센터와 협약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최근 송광한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 제공을 통한 인식 제고, 위기 학생 문제 조기 개입, 심층 심리치료 및 가족상담 연계 등 대학생들의 안정적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송광한가족상담센터 관계자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위기 상

황에서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수진 학생상담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대학 내 위기개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감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대 학생상담센터는 지역사회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연계와 상담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목포·영암으로 떠난 여행 힐링 됐어요”

진산요양원 생활인 문화활동

“문화를 찾아 목포·영암으로 떠나는 여행 덕분에 힐링 됐어요.”

사회복지법인 진산(이사장 김용권) 산하기관 진산요양원은 27일 목포와 영암 일원에서 “2025년 문화누리카드 활용 하계야유회”를 개최했다.

생활인들 문화예술 체험과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해 문화적 소외를 줄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했다.

일정은 △목포국립해양유산연구소 견학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람 △영암 물동거리 농원 체험으로 이어졌다.

오호영 생활복지사는 “문화체험은 생활인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속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권 이사장은 “하계야유회를 통해 생활인들이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며 일상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얻게 됐다”며 “사회복지시설 역할은 돌봄을 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다산베아채, 목포중앙고에 기부금 전달

학교법인 근화학원(이사장 이재자)과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총괄사장 김유림)이 목포중앙고등학교(교장 임언택)에 학교사랑 기부금 4700만원을 전달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세대 육성에 뜻을 함께 하는 지역기업과 교육재단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발전기금은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전공심화 학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자해 학생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임언택 교장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

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며 “우수한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자 이사장은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 더 나은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근화학원과 다산베아채 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고 김호남 회장의 “인재는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는 유지를 계승하고 우남문화재단 등과 함께 목포중앙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자율역량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목포=김동훈 기자

호남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는 최근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가 협력해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동아리 미쁘다 소속 김진익·정재림(3학년), 안윤하·정재원(2학년), 홍하나 학생(1학년)과 전원진 학과장 등 6명은 ‘찾아가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등 전공 실무 능력을 발휘해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단장을 도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안윤하 학생은 “어르신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활하게 웃으실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현진 학과장은 “학생들이 전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은 뷰티미용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인성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속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과 운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